

건강 칼럼

###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통한 신경통 예방이 가장 중요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 있다.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음식이 쉽게 부패하여 여름이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감염성질환은 단연코 식중독이나 감염성 설사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여름이 되면 많이 발생하는 여러 감염성 질환이 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도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에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열대야를 포함해서 더운 날씨를 견뎌야 하는 스트레스가 하나의 요인으로 되지 않을까 추측할 뿐이다. 대상포진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두의 2차 발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릴 때 걸렸던 수두가 낫는 과정에서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 신경절에 숨어 들어가게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신경을 타고 피부로 발현하는 것이 대상포진이다. 특정 신경을 타고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신경이 담당하는 피부에만 병변이 발생한다. 가령 몸의 오른쪽, 왼쪽 모두 병변이 있다면 보통 대상포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김 광 민  
대전선병원 감염내과 전문의

대상포진의 무서운 점은 신경을 타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 날 신경을 고속도로처럼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한다. 통증의 양상이 신경통이기 때문에 보통의 진통제는 반응을 잘 못한다. 또한 신경은 재생이 어려운 조직이기 때문에 통증이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생긴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많은 매체에서 다루어 그 무서움은 대중화 되어 있다. 대상포진을 치료할 때 여러 목적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는 것이다. 대상포진이 생기면 빨리 항바이러스제를 치료 받으면 신경통이 예방된다고 하지만, 최근 연

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해도 예방이 잘 안 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연코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생백신과 재조합백신 2가지 종류가 있다. 생백신은 가격이 저렴하고 1회 접종이라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대상포진에 대한 효과가 재조합백신에 비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조차 점차 감소해서, 10년 정도 지나면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지지 못하는 점이다. 그에 비해 재조합백신은 가격도 비싸고 2회 접종이라는 단점

이 있지만, 대상포진에 대한 효과가 매우 높고 10년이 지나도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두 가지 중 어떤 주사를 맞을지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우리나라 감염학회에서의 의견은 재조합백신을 우선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오히려 이전에 생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위에 언급했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조합백신을 다시 접종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한 문제가 없다면 재조합백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다. 재조합백신을 접종하려는 분은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 주사를 맞은 자리에 통증이 있지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사를 맞은 자리 혹은 전신통을 호소한다. 다만 1~3일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대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2차 접종에 대해서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종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상담을 꼭 하기를 권유한다.

### 사설

#### 보험개혁회의 출범 의미

정체된 보험 산업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보험개혁회의가 출범했다. 위기의 보험산업의 틀을 갠 혁신을 추구하고, 단기 이익만을 위한 출혈 경쟁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가 힘을 합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 사항과 미래 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당국은 최근 보험 산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우선, IFRS17 회계 제도 도입 후 발생한 과당 경쟁을 꼽았다. 단기 성과에 치중한 보험사들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전 판매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 현장에서 높은 수수료 위주의 모집 관행 등이 성행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보험업권 판매 채널의 불안전 영업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사 판매 채널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과열 경쟁을 방조하는 보험사는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과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편도 검토할 계획이다.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범 부처와 논의·연구에 들어간다. 과잉 진료, 급격한 보험료를 인상 등의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 간 의료 개혁 논의를 진행한다. 보험사기와 보험금 과소 지급에 따른 민원 등 민생 관련 문제도 집중 점검한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한다. 실무반을 통해 새로운 회계 제도부터 상품구조, 영업 관행 등을 모두 살펴보고 금융 당국은 물론 보험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과잉진료, 급격한 보험료를 인상 등의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 간 의료개혁 논의부터 진행하기 바란다.

#### 빠르게 성장하는 아프리카

최근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가 부상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실제로 대규모 기반시설 건설부터 인력 양성까지 한국과 아프리카가 협력하고 있다.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을 마주 보고 있는 탄자니아는 항구와 내륙을 잇고 또 이웃 나라와도 통하는 철도가 건설 중이다. 공사 감리부터 차량운행 시스템 구축까지 코레일을 비롯한 한국 기업이 참여 중이다. 탄자니아는 한국 철도가 매우 안전하며 100% 제시간에 운행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을 선택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2021년에는 최고 속도 시속 160km인 전동차 80량 등 3,350여억 원어치 장비를 한국 기업이 구매했다. 전동차도 일반 기관차에 비해 전기 기관차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말했다. 2년 전 완공 이후 탄자니아의 상징물이 된 해상 교량도 한국이 제공한 1,700억 원대 차관으로 한국 기업이 건설했다. 아프리카가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으로 디지털 산업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높은 기술력을 확보한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케냐는 카이스트를 본뜬 과학 기술원을 현재 짓기로 하고, 한국 회사에 건설을 맡겼다. 과학기술대학교는 케냐 젊은이들에게 꿈의 장소이기도 하고 케냐의 제일 핵심적인 미래의 가치를 위한 투자라는 평가다. 지난 4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초청장을 받은 48개국 모두 참석했다. 한국과 참석국들은 스타트업·정보통신·관광·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프리카의 개발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바이든을 해고하라”



18일(현지시각) 미 위스콘신주 러신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서 한 지지자가 트럼프를 기다리면서 그늘에 누워 휴식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과 관련, ‘바이든은 전 세계에 불법 입국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면서 바이든의 ‘불법체류 배우자 영주권 취득’ 관련 정책을 비판했다.

#### 세금 인상안에 항의하는 케냐 시위대



18일(현지시각) 케냐 나이로비에서 정부의 세금 인상안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윌리엄 루토 대통령이 최근 2.5%의 자동차세와 땀에 대한 부가기세를 제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법안에 서명해 의회가 이를 논의한 후 30일 이전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수십 명이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앞에서 시위의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